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March 2025 Issue | Vol. 20

SPECIAL POINTS OF INTEREST

- 6% 경제 성장 달성은 여전히 어려울 것 — 보고서 — page 1
- 태풍 영향으로 4분기 국내 교역 규모 및 물량 감소 — page 2
- OECD, 세계 경제 성장 전망 하향 조정 — page 2-3
- DTI 해외무역 부서, 1월 기준 760억 달러 투자 유치 — page 3
- 2025년 말까지 인플레이션 목표 초과 가능성 — BSP — page 4
- 필리핀, 이제 경제적으로 '부분적 자유' 국가로 평가 — 글로벌 지수 — page 4-6
- 필리핀 1월 금융 자원 전년 대비 7.9% 증가, 33.66조 페소 기록, 12월 대비 소폭 감소, 디지털 은행이 44.5% 상승하며 최고 성과 — page 7

UPCOMING EVENT

- [April 03, 2025] KCCP 제30회 정기 총회 — page 8

6% 경제 성장 달성은 여전히 어려울 것 — 보고서

March 17, 2025 | Reine Juvierre S. Alberto | BusinessMirror

필리핀 경제가 정부의 부채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 감소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 최소 6.06% 성장해야 하지만, 이러한 성장률은 "비현실적"일 수 있다고 드라살 대학교(DLSU)가 밝혔다.

DLSU는 3월 필리핀 경제 보고서에서 필리핀 고빈도 모델(Philippine High Frequency Model)이 6%를 초과하는 경제 성장을 예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학교는 필리핀 경제가 2025년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정부의 목표 범위인 6~8%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최신 경제 지표에서 뚜렷한 성장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등 중요한 변화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DLSU는 밝혔다.

필리핀 경제는 2024년 5.6% 성장했으며, 이에 따라 재정적자 대비 GDP 비율은 5.7%를 기록해 정부 목표치인 5.6%를 상회했다.

"1조 5,400억 페소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안할 때,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5.32% 이하로 낮추려면 최소 6.06%의 경제 성장률이 필요합니다,"라고 DLSU는 설명했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2023년 1조 5,120억 페소에서 0.4% 감소한 1조 5,060억 페소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2024년 재정적자 1조 4,800억 페소보다 1.48% 높은 수준이다.

"재정적자 감소가 반드시 필리핀 경제가 더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DLSU는 밝혔다.

이는 정부의 재정이 가계나 기업과 다르기 때문이며, 이들에게 영구적인 적자는 유지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DLSU는 설명했다.

DLSU는 재정적자는 민간 부문이 순저축을 원하거나 순수입을 증가시키려 할 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즉, 재정적자는 정부 지출이 아니라 민간 부문의 결정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재정적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이나 재무 당국이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DLSU는 말했다.

"경제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적자가 아니라 민간 부문의 적자입니다. 정부가 외화를 빌리고 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정적자는 위기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필리핀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부문의 적자를 면밀히 감시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DLSU는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를 건전한 경제 운영이나 뛰어난 경제 성과의 핵심 지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보다는, 정부가 필리핀 경제가 장기적으로 더 빠른 성장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밝혔다.



Commercial and residential buildings rise in this skyline of Metro Manila as residential houses are seen in foreground. (NONIE REYES)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3/17/economic-growth-of-6-will-remain-elusive-report/>

태풍 영향으로 4분기 국내 교역 규모 및 물량 감소

March 17, 2025 | Pierce Oel A. Montalvo | BusinessWorld



필리핀 통계청(PSA)은 여러 차례의 태풍으로 경제 활동이 방해받으면서 4분기 국내 상품 교역 가치가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고 예비 데이터를 인용해 밝혔다.

PSA의 **필리핀 상품 흐름 보고서**에 따르면, 4분기 교역 상품의 총 가치는 2,462억 2,000만 페소로, 전년 동기의 3,265억 6,000만 페소에서 감소했다.

PSA는 국내 교역 가치가 상품이 원산지에서 목적지로 운송될 때 발생하는 유출(outflow) 가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상품 흐름에는 수상, 항공, 철도를 통한 운송이 포함되며, 이 중 수상 운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교역 물량은 전년 대비 25.9% 감소한 623만 톤을 기록했다.

"4분기 국내 교역 둔화는 자연재해로 인한 공급망 차질이 주요 원인입니다,"라고 오이코노미아 어드바이저리 앤드 리서치(Oikonomia Advisory and Research, Inc.)의 경제학자 레이니엘 매트 M. 에레세(Reinielle Matt M. Erece)는 이메일에서 밝혔다.

에레세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로 인해 수요가 위축되면서 4분기 국내 교역이 더욱 둔화했다고 덧붙였다.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9%로 11월의 2.5%보다 상승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연간 인플레이션은 3.2%로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 내에서 형성되었다.

국가재난위기관리위원회(NDRRMC)에 따르면, 10월에서 11월 사이 발생한 6개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220억 페소를 넘어섰다.

PSA가 모니터링한 10개 상품군 중 7개 그룹의 교역 가치가 감소했다.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것은 기계 및 운송 장비로 59.5% 줄었으며, 이어 ; 동물 및 식물성 유지·지방·왁스(-47.2%) ; 식품 및 살아있는 동물(-19.4%) ; 음료 및 담배(-14.7%) ; 광물성 연료·윤활유 및 관련 제품(-10.2%) ; 화학제품 및 관련 제품(-7.8%) ; 연료를 제외한 원자재(-1.5%) 순이었다.

반면, 증가한 상품군은 ; 소재별로 분류된 제조품(25.8%) ; 기타 제조품(9%) ; PSSC(필리핀 상품 분류 코드)에서 기타로 분류된 상품 및 거래(5.7%)였다.

거래된 상품 중 가장 높은 가치를 기록한 것은 식품 및 살아있는 동물로, 해당 기간 동안 720억 7,000만 페소를 기록하며 전체 국내 교역 가치의 29.3%를 차지했다.

기계 및 운송 장비는 474억 8,000만 페소(19.3%), 소재별 분류된 제조품은 451억 5,000만 페소(18.3%)로 뒤를 이었다.

국내 교역에서 가장 많은 거래 가치를 기록한 지역은 국가수도권(NCR)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NCR의 교역 유출액은 1,313억 1,000만 페소, 유입액은 242억 9,000만 페소로 1,070억 2,000만 페소의 흑자를 기록했다.

서부 비사야스(Western Visayas) 지역의 유입액은 466억 3,000만 페소로 전체의 18.9%를 차지했다.

에레세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선거를 앞둔 정부 지출 증가 기대감이 국내 교역 회복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2월 인플레이션은 2.1%로, 최근 5개월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3/17/659926/domestic-trade-declines-by-value-volume-in-q4-due-to-typhoons/>

OECD, 세계 경제 성장 전망 하향 조정

March 18 2025 | By Agence France-Presse | The Manila Times

파리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월요일, "무역 장벽"과 "불확실성"을 이유로 2025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The Manila Times®

OECD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발생한 무역 긴장이 부분적으로 성장 전망을 둔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Cont. page 3]

OECD, 세계 경제 성장 전망 하향 조정

[Cont. from page 2]

파리에 본부를 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월요일 "무역 장벽 증가"와 "불확실성"을 이유로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3.3%에서 3.1%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주요 G20 경제권의 높은 무역 장벽과 지정학적 및 정책적 불확실성 증가가 투자와 가계 소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플레이션도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은 주로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 성장 둔화에 기인한 것이다.

미국의 2025년 성장률은 기존 2.4%에서 2.2%로 하향 조정됐으며, 2026년에는 1.6%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OECD의 이전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로존의 2025년 성장률 전망도 세 달 전 예상했던 1.3%에서 1.0%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2024년 0.7%에서 2026년 1.2%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 경제는 2025년 4.8%, 2026년 4.4%의 건강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촉발한 무역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이전 예상보다 더 높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OECD는 경고했다.

OECD는 "2026년에도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OECD는 선진국 정책 자문을 수행하며 세계 경제에 대한 정기적인 전망을 발표하고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분석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경제 전망에는 미국이 캐나다 및 멕시코와 부과한 새로운 관세 조치가 반영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의 신규 관세,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유럽연합(EU)과 관련된 관세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OECD는 "추가적인 보복성 관세가 주요 경제권 간에 부과될 경우 전 세계적인 성장에 타격을 주고 인플레이션을 가중할 수 있다"며 "여전히 상당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세계 경제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는 유럽 국가들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NATO 지원 축소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는 점이 꼽혔다.

OECD는 국방비 지출 증가가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을 가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5/03/18/business/top-business/oecd-trims-global-growth-projections/2074608>

DTI 해외무역 부서, 1월 기준 760억 달러 투자 유치

March 14, 2025 | By GMA Integrated News | GMA News Online



산업통상자원부(DTI)는 해외무역서비스단(FTSC)을 통해 1월 기준 7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 약정을 확보하며, 2025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필리핀을 최우선 투자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DTI는 금요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FTSC가 올해 1월까지 총 247건의 투자 유치 기회를 발굴하고, 760억 달러(약 4조 페소)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DTI의 글로벌 투자 및 무역 촉진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라고 DTI는 밝혔다.

DTI는 247건의 투자 유치 기회 중 51건이 이미 상당히 진척된 단계에 있으며, 이 중 28개 기업은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했거나 투자 촉진 기관과 협력하여 시장 진입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3개 기업은 이미 상업 운영을 시작한 상태다.

DTI는 “이러한 투자들은 제조업, 정보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IT-BPM),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소매업, 농업, 통신 등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DTI의 해외무역서비스단은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 기회를 발굴하고, 필리핀 수출업체들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며, 무역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ed Cordero/RF, GMA Integrated News

Source: <https://www.gmanetwork.com/news/money/economy/939299/dti-s-foreign-trade-unit-books-76b-investment-pledges-as-of-january/story/>

2025년 말까지 인플레이션 목표 초과 가능성 — BSP

March 18, 2025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공급망 혼란, 변동성 높은 원자재 가격, 외환 변동 등의 위험이 커짐에 따라 2025년 후반기에 인플레이션이 목표 상한선인 4%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최신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은 “2024년 같은 기간 동안 원자재 가격 압력이 완화된 데 따른 기저 효과로 인해 2025년 후반기에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BSP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지적했다. 주요 위험 요소로는 지속적으로 높은 국제 유가, 식량 공급 차질, 폐소화 평가절하, 임금 인상 가능성, 교통비 및 공공요금 조정 등이 있다.

지정학적 긴장과 주요 산유국들의 생산 감축은 연료 가격을 상승시켜 교통비 및 공공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BSP는 “만약 두바이유 가격이 2025년에 배럴당 100달러, 2026년에 85달러를 평균적으로 기록할 경우, 직접적인 영향만 고려해도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압박할 수 있으며, 2023년 7월 대법원이 2013년 하반기 전력도매시장(Wholesale Electricity Spot Market) 가격 상한제를 무효화한 판결 이후 전기요금 인상도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돼지고기 공급과 양돈업 재건 노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인플레이션의 추가 상승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폐소화 가치 하락은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환율 변동은 글로벌 통화정책 동향,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의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BSP는 관세 인하로 인한 쌀 가격 하락이 2025년 상반기 동안 인플레이션을 목표 범위인 2~4%의 중간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BSP는 또한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완화된 데 따라 2026년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2~4% 목표의 중간값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BSP는 2025년 인플레이션 기본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5%로 상향 조정했으며, 2026년 전망치는 3.5%로 유지했다.

BSP는 “2025년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향 조정된 것은 글로벌 유가 및 비(非)유가 상품 가격 상승, 폐소화 평가절하, 그리고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 예상치를 웃돈 인플레이션 수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SP는 위험 조정된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2025년 3.5%, 2026년 3.7%로 설정했다.

한편, 쌀 수입 관세 인하는 국내산 쌀 가격을 추가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

BSP는 “전반적으로 2025년과 2026년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위험 요인들은 현재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BSP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 내에 머물 확률은 53.5%이며, 2026년에는 49.9%로 추정됐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3/18/2429108/inflation-could-breach-target-late-2025-bsp>



In its latest Monetary Policy Report, the central bank said that “inflation could exceed the target range in the latter part of 2025, primarily due to base effects from easing commodity price pressures in the corresponding period of 2024.”

Philstar.com / File

필리핀, 이제 경제적으로 ‘부분적 자유’ 국가로 평가 – 글로벌 지수

March 19,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A Philippine flag flutters in the wind at the National Shrine of Mary, Queen of Peace in Quezon City. — PHILIPPINE STAR/MIGUEL DE GUZMAN

필리핀, 글로벌 경제 자유 지수에서 ‘보통 자유’ 국가로 상승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이 발표한 글로벌 경제 자유 지수에 따르면, 필리핀은 176개국 중 82위를 기록하며 6계단 상승해 ‘보통 자유(moderately free)’ 국가로 분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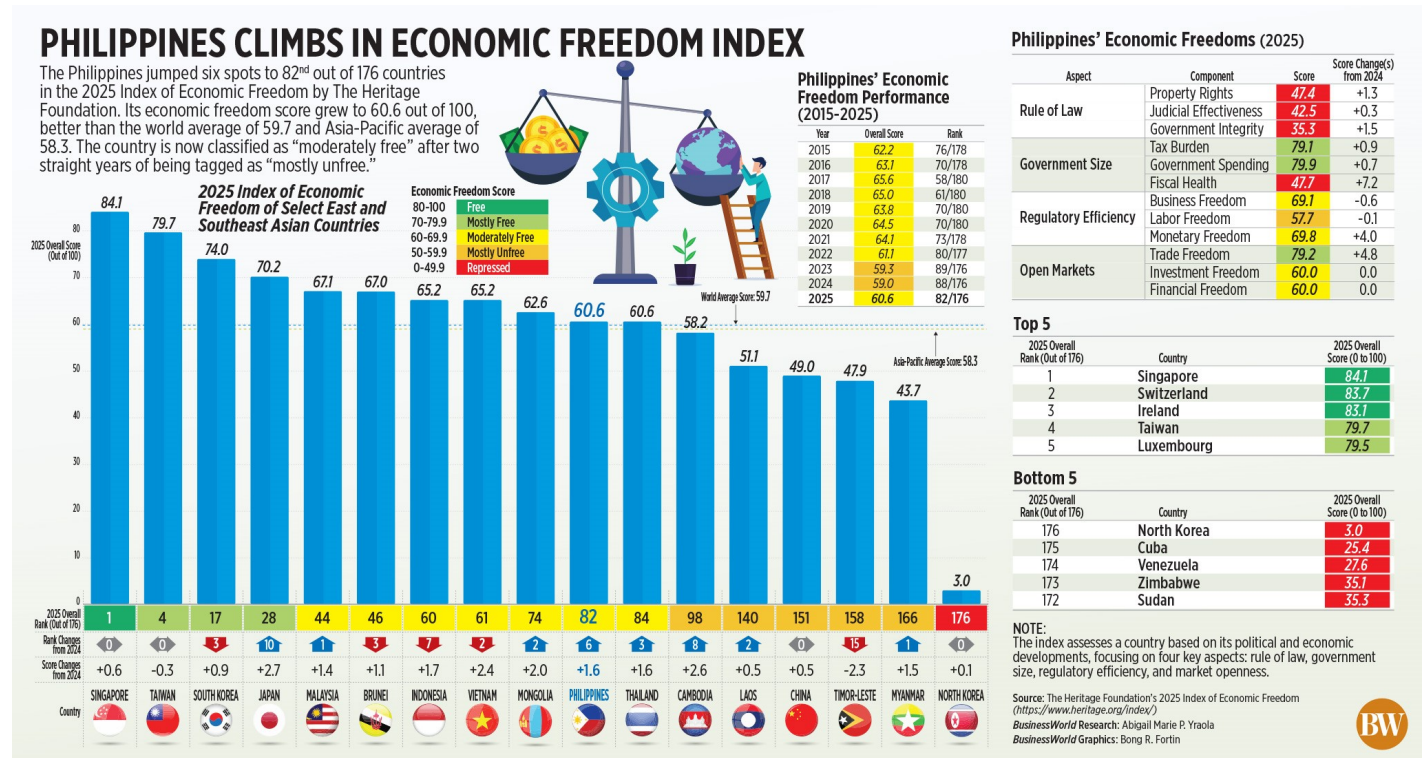
2025년 경제 자유 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필리핀의 점수는 2024년 59.0에서 60.6으로 1.6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지난해 ‘대체로 자유롭지 않음(mostly unfree)’에서 올해 ‘보통 자유’ 수준으로 격상됐다.

올해 경제 자유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84.1점)로 1위를 차지했으며, 스위스(83.7점), 아일랜드(83.1점), 대만(79.7점), 룩셈부르크(79.5점)가 그 뒤를 이었다.

[Cont. page 5]

필리핀, 이제 경제적으로 '부분적 자유' 국가로 평가 - 글로벌 지수

[Cont. from page 4]



반면, 가장 경제 자유도가 낮은 국가로는 북한(176위), 쿠바(175위), 베네수엘라(174위), 짐바브웨(173위), 수단(172위)이 포함됐다.

필리핀은 아시아태평양 39개국 중 16위를 차지하며, 지역 평균 점수인 58.3을 상회했다. 또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중 태국(84위), 캄보디아(98위), 라오스(140위)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다만, 말레이시아(44위), 브루나이(46위), 인도네시아(60위), 베트남(61위) 등 일부 ASEAN 국가들보다는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경제 자유의 12가지 측면을 평가하며, 이를 법치(Rule of Law), 정부 규모(Government Size), 규제 효율성(Regulatory Efficiency), 시장 개방성(Market Openness) 등 4개 주요 부문으로 나눠 측정한다.

법치 부문에서 필리핀은 재산권 47.4점, 사법 효율성 42.5점, 정부 청렴도 35.3점을 기록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필리핀의 전반적인 법치 수준은 취약하다. 재산권, 사법 효율성, 정부 청렴도 점수가 모두 세계 평균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정부 규모 부문에서는 세금 부담 79.1점, 정부 지출 79.9점, 재정 건전성 47.7점을 기록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필리핀의 규제 환경에 대해 "제도적으로 자리 잡혀 있지만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는 기업 자유도 69.1점, 노동 자유도 57.7점, 통화 자유도 69.8점의 점수로 나타났다.

시장 개방성 부문에서는 무역 자유 79.2점, 투자 및 금융 자유 60점을 기록했다.

"필리핀은 외국인 투자를 대체로 환영하며, 투자법은 외국 투자자를 국내 투자자와 동등하게 대우한다. 금융 부문은 은행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자본 시장은 미개발 상태"라고 분석했다.

또한, 헤리티지 재단은 "세계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리핀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Cont. page 6]

필리핀, 이제 경제적으로 '부분적 자유' 국가로 평가 – 글로벌 지수

[Cont. from page 5]

헤리티지 재단은 “정부가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민간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개혁을 추진해 보다 광범위한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규제 효율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으며, 필리핀 경제는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6%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헤리티지 재단은 제도적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부패가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필리핀, 수입 의존적 특성 반영... 생산 부문 발전 필요”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레오나르도 A. 란조나(Leonardo A. Lanzona)**는 필리핀의 점수가 “수입 의존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며, “이로 인해 관세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소비자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지만, 생산자에게는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관세율 인하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국내 생산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리핀의 통화 정책은 시장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경제적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 부문(real sector)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건전성·통화 안정성·무역 자유도에서 진전”

필리핀개발연구소(PIDS) 선임 연구원인 **존 파울로 R. 리베라(John Paolo R. Rivera)**는 이번 보고서가 필리핀의 재정 건전성(fiscal health), 통화 안정성(monetary stability), 무역 자유도(trade freedom) 등의 개선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려는 노력, 조세 징수 효율성 개선, 인프라 및 디지털화 발전 등을 추진한 결과, 경제 자유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필리핀은 여전히 규제 효율성(regulatory efficiency), 사법 효율성(judicial effectiveness), 부패 통제(corruption control) 부문에서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규제 간소화 및 법치 강화가 핵심”

리베라는 “경제 자유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규제를 간소화하여 행정 절차를 줄이고, 중소기업(MSME)의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법치(rule of law)와 계약 집행(contract enforcement)을 강화하는 것이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테네오 정책대학원(Ateneo School of Government) 원장이자 경제학 교수인 **필립 아놀드 P. 투아노(Philip Arnold P. Tuano)**는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재정 건전성(fiscal health), 통화 자유(monetary freedom), 무역 자유도(trade freedom)에서의 점수 상승을 꼽았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필리핀의 공공 부채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유지되었으며, 정부 부채 상환도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세제 개혁이 일부 진행되면서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부동산 권리(property rights) 부문 점수의 소폭 상승은 토지 등록의 디지털화 확대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 무결성(government integrity) 점수도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새로운 조달법(procurement law)의 제정 덕분이다. 이 법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아직 시행이 미흡한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자유 지표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냐”

경제 개혁을 위한 시민단체 Action for Economic Reforms의 조정관인 **필로메노 S. 스타아나 III(Filomeno S. Sta. Ana III)**는 경제 자유 지표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도구의 적절한 활용은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자본 계정(capital account)이 개방적이고 자유로울수록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개방된 자본 계정은 실물 경제(real economy)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와 경제 개혁이 순위 상승에 기여”

리잘 커머셜 बैं킹 코퍼레이션(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L. 리카포트(Michael L. Ricafort)는 필리핀의 경제 자유도 순위 상승은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조치 및 경제 개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국제 투자자들의 시각에서 필리핀의 경제 자유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 자유도를 더욱 향상시키려면 거버넌스(정부 운영) 기준을 높여야 하며, 부패 문제는 필리핀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3/19/660259/philippines-now-moderately-free-in-economic-aspects-global-index/>

필리핀 1월 금융 자원 전년 대비 7.9% 증가, 33.66조 페소 기록:

12월 대비 소폭 감소, 디지털 은행이 44.5% 상승하며 최고 성과

March 19, 2025 | Jimmy Calapati | Malaya Business Insight



방코 센트럴 응 필리피나스(BSP)는 어제 발표에서 필리핀 금융 부문의 총자산이 2024년 1월 P31.181조에서 2025년 1월 P33.658조로 7.94%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4년 12월 기록된 P33.960조와 비교하면 0.9% 감소한 수치다.

BSP에 따르면, 금융 시스템의 총자산은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금과 자산으로, 예금, 자본, 채권(부채 증권) 등이 포함된다.

은행 부문이 P27.954조를 차지하며 전체 금융 부문의 **83.05%**를 구성했다. 2024년 1월의 P25.621조에서 9.10% 증가했지만, 2024년 12월의 P28.256조 보다는 1.06% 감소했다.

한편, 비은행 금융기관(NBFI)의 자산은 2025년 1월 P5.704조로 증가하며 전체 금융 부문의 16.94%를 차지했다. 이는 2024년 1월의 P5.560조 대비 2.58% 증가한 수치이지만, 2024년 12월과 비교하면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을 보였다.

BSP에 따르면, 유니버설 및 상업은행의 자산은 8.88% 증가하여 2024년 1월 P24.004조에서 2025년 1월 P26.137조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024년 12월 기록한 P26.437조보다는 1.13% 감소했다.

저축은행은 2024년 1월 1.077조 페소에서 7.33% 증가한 1.156조 페소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12월의 1.169조 페소보다 1.11% 감소한 수치다.

디지털은행은 1년 전보다 44.56% 급증한 1,333억 페소를 기록하며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2024년 1월 926억 페소에서 증가한 것이며, 2023년 12월의 1,215억 페소보다도 9.92% 높은 수준이다.

농촌 및 협동조합 은행은 1년 전 4,465억 페소에서 18.16% 증가한 5,271억 페소를 기록했으나, 2023년 12월과 비교하면 거의 변동이 없었다.

계절적 변동

BDO의 수석 전략가인 조나단 라벨라스(Jonathan Ravelas)는 연간 성장률이 "금융 부문의 회복력과 지속적인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라벨라스는 화요일 Viber 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성장은 견고한 금융 환경과 경제 활동 증가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12월 33.960조 페소에서 0.9% 소폭 감소한 것에 대해 "일시적인 계절적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흔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ph-jan-financial-resources-grow-7-9-on-yr-to-p33-66t-down-slightly-from-dec-digital-banks-top-performer-with-44-5-gain/>

UPCOMING EVENT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KCCP), Inc.

30TH ANNUAL GENERAL MEMBERSHIP MEETING

April 3, 2025 (Thursday) 05:00pm
Orchard A & B, 5F Ascott Hotel BGC

R.S.V.P.
Ms. Chi | Ms. Sang

 (02) 8885-7342
 info@kccp.ph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will be holding its **30th Annual General Membership Meeting** on **April 3, 2025 (Thursday) 5:00PM at the Orchard A & B, Ascott Bonifacio Global City** located at 5th ave. cor. 28th St., Bonifacio Global City, Taguig City. The event will also commemorate its 30th Anniversary and will highlight the 30 years in service of the chamber and celebrate the strengthening relation of the Korean business community in the Philippines.

The event is also open for sponsorships,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event and sponsorships, please feel free to call KCCP at +632-8885-7342 (0917-8015920 | Chi / 0915-8887296 | Sang) or via email at info@kccp.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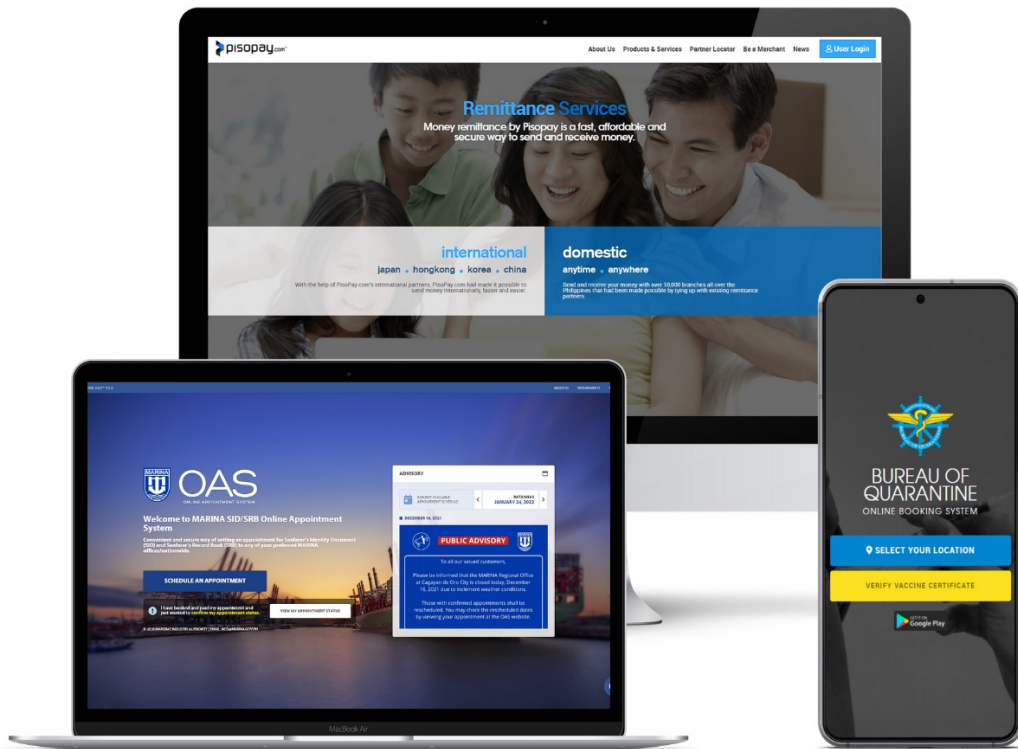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Elevating the definition of Fintech Standards



CONTACT US

- (02) 8242 8153
- info@pisopay.com.ph
- <https://www.pisopay.com.ph>
- Pisopay Bldg, 47D Polaris, Makati, 1209 Metro Manila

